

“I'm okay” 투혼의 에이스는 한국시리즈를 바라본다

‘턱관절 골절’ 네일, 복귀 시동 고정술 열흘 만에 저장도 운동 KIA, 통역·영양사까지 한마음 “빨리 회복해야 우승 도움 돼”



“빠르게 전력에 복귀 해 팀의 열두 번째 우승에 보탬이 되겠다.”

놀라울 정도의 회복 속도다. 지난달 24일 강습 타구에 얼굴을 맞고 턱관절 골절로 정규 시즌을 조기 마감한 KIA타이거즈 제임스 네일이 열흘 만에 실전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네일은 지난달 2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턱관절 고정술을 받은 뒤 27일에는 구단 지정 병원인 광주 선한병원으로 병상을 옮겼다. 일주일 가량 입원 치료를 통해 회복기를 갖기 위해서였는데 네일은 사흘 만에 퇴원을 택했다.

퇴원 직후 네일은 구단에 강력하게 훈련 의지를 피력했다. 턱 보호대는 광주로 병원을 옮기자마자 풀어헤친 상황이었고, 어깨와 팔꿈치 운동을 위해 필요한 튜빙 밴드를 비롯해 간단한 운동 기구들을 집으로 챙겨왔다.

급기야 지난 3일부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 나와 훈련을 시작했다. 가벼운 움직임은 괜찮다는 병원 소견이 나왔고, 트레이닝 파트에서는 하체 위주의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준비했다.



KIA타이거즈 제임스 네일(가운데)이 지난 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4차전에 앞서 더그아웃에서 에릭 스타우트, 에릭 라우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네일의 결을 지킨 박재형 통역사도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통역사는 “죽과 음료만 먹으라고 했는데 곰탕이나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다. 그래도 건더기는 안 먹어서 다행”이라며 “집에서 야구도 매일 챙겨 보고 운동도 열심히 한다. 밝아서 좋긴 한데 너무 급한 게 아닌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웃었다.

박 통역사의 걱정이 무색하게 네일은 지난 4일 실내를 벗어나 더그아웃에도 모

습을 드러냈다. 연습복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로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수염으로 수술 자국을 가려 치아에 고무 밴드를 고정한 것 외에는 부상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았다.

네일은 이날 전남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많은 이들이 나를 위해 노력해 주고 있다. 통역은 나의 출퇴근을 도와주고, 영양사는 칼로리와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 있는 수프와 죽을 만들어 준다”며 “트레이닝

파트에서는 운동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단백질 셰이크를 만들어 근육을 유지하게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네일은 턱관절 고정술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제대로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상태다. 죽과 음료 등 따로 씹을 필요가 없는 음식들로 식사를 해결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는 “지금의 체격을 유지해야 한다. 근육과 체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며 “경기를 뛸 수 있는 충분한 근육과 체중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다음 주에 고정 기구를 풀면 고삐 풀린 듯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부상을 당했기에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동료들과 소통이나 가벼운 운동은 그에게 에너지를 얻게 해주는 요소다. 이날 더그아웃에 모습을 드러낸 네일은 KIA뿐만 아니라 한화 선수들과도 반갑게 소통하는 모습이였다.

네일은 “집에서만 지내는 것이 지루하다”며 “한국에 홀로 있기 때문에 경기장에 나와서 동료들도 보고 팬들도 만나길 원했다. 빠르게 회복해 한국시리즈에는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도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범호 감독도 네일의 태도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전했다. 네일이 올 시즌 KBO 리그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이어왔던 만큼 포스트시즌에서는 반드시 그의 존재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 감독은 “야구장에 나와서 가볍게 움직이고 선수들도 만나고 하면 웃음도 생기고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싶다”며 “겉거나 튜빙 훈련만 해줘도 회복은 훨씬 빠를 거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한국 장애인 탁구 국가대표팀 문성혜(왼쪽부터)와 정영아, 차수용이 단식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뉴시스

장애인 태극전사, 파리 패럴림픽 탁구서 동3개

문성혜·정영아·차수용 개인전 **銅** 보치아 정호원-강선희 **銀** 확보 탁구 김정길·김영건 동반 **銅** 확보



2024 파리 패럴림픽에 나선 장애인 태극전사들이 탁구에서만 동메달 3개를 추가하는 선전을 펼쳤다. 한국 선수단은 5일 (한국 시간) 오전까지 금메달 4개와 은메달 7개, 동메달 11개를 수확하며 종합 순위 17위에 자리잡았다.

문성혜(성남시청)는 지난 4일 오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파리 슈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 탁구 여자 단식 WS5 준결승에서 장벤(중국)에게 1-3(6-11, 11-9, 8-11, 10-12)으로 고배를 마시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정영아(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이어진 탁구 여자 단식 WS5 준결승에서 판자야민(중국)에게 1-3(11-9, 6-11, 8-11, 10-12)으로 역전패하며 동메달을 보태는데 만족해야 했다.

차수용(대구시청)은 5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이번 대회 탁구 남자 단식

MS2 준결승에서 라파우 추페르(폴란드)에게 1-3(11-3, 12-14, 8-11, 11-13)으로 역전패하며 동메달을 추가했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 금메달 5개 이상 획득, 종합 순위 2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 소속 장애인 태극전사들은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강선희(한전KPS)는 정호원(강원도장애인체육회)과 5일 오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파리 슈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 보치아 혼성 페어 BC3 준결승에서 호흡을 맞춰 아르헨티나에 4-2(3-0, 0-1, 1-0, 0-1)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김정길과 김영건(이상 광주시청)은 지난 4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이번 대회 탁구 남자 단식 MS4 8강에서 각각 네심 투란(튀르키예)과 보리스 트라브니체크(슬로바키아)를 3-1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한규빈 기자

목포스포츠클럽, 2024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축구대회 성료

3개 종목 10개팀 총 350명 참가 축구볼링 등 문화 이벤트도 열려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어울린 드림업(Dream Up) ‘2024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축구대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사단법인 목포스포츠클럽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단체전에서 변형한 풋살(4인) 부문 총 32개팀(초·중등부 각 16개팀), 개인전의 축구올림픽(2인) 부문 총 32개팀(초·중등부 각 16개팀), 경연종목의 축구 세러머니대회 10개팀으로 지역 참가학생 272명과 학부모 및 진행요원 등 총 350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는 축구 경기 외 문화행사도 다채

롭게 열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문화행사로 △FC목포 프로축구선수 초청 토크콘서트 △축구지도자와 함께하는 진로상담 △친환경이벤트인 개인물병 디자인 및 리필 사용하기와 플로깅이벤트 △축구 볼링·축구속도 측정 △축구 프로필 촬영 △축구 킥 성공하기 등이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나지우(목포교대 부설초 3년) 학생은 “학생선수와 팀을 이뤄 이번 대회에 참가해보니 나도 학생선수로서 전문축구인 목포FC에 입단해 실력을 높이고 싶다”며 “특히 진로상담 부스에서 FC목포 축구선수들이 축구에 대해 친절하게 얘기해줘서 너무도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경래 목포스포츠클럽 회장은 “지역의

풀뿌리인 우리 유·청소년들이 이색 축구 대회인 이번 대회를 통해 실력을 떠나 함께 성장하고 함께 즐기는 대회가 되어 뜻 깊었다”며 “앞으로 목포스포츠클럽은 이번 대회를 통해 일반학생과 학생선수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전남도체육회가 지난 6월 대한체육회의 2024 청소년스포츠한마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를 지원 받아 치러졌다.

한편 목포시의 유일한 지정스포츠클럽인 목포스포츠클럽은 지역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축구, 배드민턴, 농구, 풋살, 파크골프 등의 종목에 취미반부터 전문선수 반까지 선순환 체계의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광주여대 오예진, 회장기대학실업양궁 2관왕

광주시청 김수린 금 1·은 1개

국가대표 오예진(광주여대 3)이 올림픽제패기념 제41회 회장기대학실업양궁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오예진은 지난 3일 강원도 원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대학부 30m경기에서 356점을 쏘 김세연(경희대 3)과 공동 1위를 차지했다.

355점을 기록한 서보은(순천대 2)은 최해미(동서대 1), 심민주(인천대 2)와 공동 3위에 자리했다.

오예진은 앞서 전날 70m경기에서는 341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



오예진



김수린

다. 김수린(광주시청)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김수린은 지난 2일 열린 70m경기에서 347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

다. 이어진 60m경기에서는 350점으로 신정화(대전시체육회·355점)에 이어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원주(조선대 4)는 남자대학부 30m 경기에서 355점을 쏘 1위 김예찬(경희대 2·357점), 2위 최두희(경희대 3·356점)에 이어 김중우(한체대 1), 용혁중(한체대 4), 장준하(계명대 1), 김동훈(안동대 1), 이승우(안동대 3), 이정환(배재대 2), 김동현(경희대 1) 등과 공동 3위를 차지했다.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한 남수현(순천시청)은 여자일반부 30m에서 358점을 쏘 강채영(현대모비스·359점)에 이어 임해진(대전시체육·358점)과 공동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동환 기자